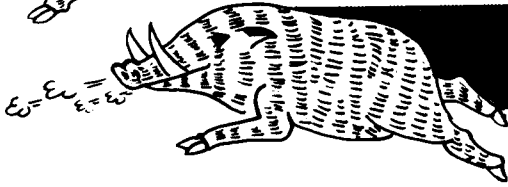




# 매연탐지의 명수



# 멧돼지



金正萬  
(서울대공원 진료과장)

**멧돼지**의 주둥이에서 솟구치는 괴력과 힘은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태산같은 불굴의 부지까지 갖춘 짐승이 바로 멧돼지이다.

이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 적이나 나무라면 아주 용감하게 싸운다.

일단 화가 치솟으면 원통같은 주둥이를 하늘을 향해 추켜세운 후 날카롭고 예리한 송곳니로 닥치는대로 나꾸어 채는데 그 힘은 아름드리 나무동지도 찍어서 넘어뜨릴 정도이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멧돼지나 집돼지 또는 곰을 보고 우둔하고 미련한 짐승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들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알아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멧돼지는 일단 자기무리를 해치려 들거나 자기 새끼들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느끼면 흥분을 앞세워 작전보다는 힘과 투지에 의한 무모할 정도의 돌격으로 무조건 상대방을 억압하고 받아버리는 맹수로 손꼽힌다.

주둥이로 상대방을 받았을 때 일단 상대가 쓰러지면 그때는 의기당당하게 주둥이로 회롱하듯이 여유를 갖고

살생을 시도한다.

그러나 의외로 상대가 힘이 세고 거구에다 끄떡도 하지 않으면 제2차의 투쟁방법을 택한다.

힘껏 달려서 그 탄력으로 주둥이의 힘을 더해 상대방을 공격해서도 상대가 쓰러지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콧소리와 비명을 질러 온 무리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후 최후의 한판승부를 겨룬다.

그래도 끝까지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기소침해진 채자는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박은 후 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이처럼 멧돼지는 명석한 두뇌와 동물에 속하면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잔피로 싸우는 묘리만 터득해서 살생을 직업으로 삼는 표범, 늑대, 삿, 곰, 사냥개, 너구리 등이 멧모르고 멧돼지에게 덤벼들었다가는 멧돼지의 주둥이 힘에 의해 순식간에 5~7m밖으로 나가떨어져 정신도 못차리게 된다. 이순간 멧돼지는 재차 송곳니로 상대의 배를 치받아 공격함으로써 잔피로 으스대는 맹수들로 하여금 최후를 마치게 한다.

멧돼지에 한번 혼난 육식동물들은 멧돼지의 주둥이와

씩씩대며 돌진해오는 모습만 보아도 기겁해서 도망칠만한 멧돼지는 용맹스런 무적의 살생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산야에서 가죽끼리 오손도손 살아갈 때와 새끼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는 지독한 겁쟁이로 변해서 진공과 번개는 물론 가랑잎소리, 바람소리, 인기척에도 놀라서 천길만길 날뛰며 심산계곡의 암반이나 기암절벽의 험난한 지역 할것없이 시속 50km의 무서운 속력으로 달려 안전지대로 자취를 감추어버린다.

여기서 멧돼지의 특특함과 놀라운 지능지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수확기의 농작물과 유실수를 해치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사람들을 흔히 옥노, 함정, 폭약 등을 장치해 놓는다. 그렇지만 어린 새끼에서 갓자란 놈은 몰라도 노련한 멧돼지는 잘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옥노를 튀겨서 채쳐놓고 함정은 흙냄새 등으로 판별해서 아예 접근치 않으며 폭약은 긴 주둥이로 살살 노출시킨 후 물어다 강속같은 곳에 흔적도 없이 버린다.

그리고선 며칠을 두고 자신을 해칠려고 장치를 해놓은 농장이나 농작물에 대해 일대 소탕작전을 벌인다.

간혹 폭약을 잘못 다루다가 긴 주둥이에 심한 부상을 입거나 출혈이 심하면 화농균의 침입을 막고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 아릅드리 소나무의 껍질을 송곳니로 물어뜯어 거기서 나오는 송진을 환부에나 바르고 진흙 바닥을 찾아서 주둥이를 거기다 파묻고 완전지혈이 될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지혈이 되고 냉각으로 인해 동통이 없어지면 각종 식물의 뿌리와 잎사귀로 진을 내어 환부에 바르는 한방치료요법을 동원한다.

가히 한방치료의 명의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멧돼지는 한국·일본등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 등지에 서식하며 지구상에는 현재 5속 8종류가 우거진 산림속 또는 아릅드리 고목이 울창한 험준한 산야에서 살아가고 있다.

멧돼지의 몸 길이는 보통 180cm, 몸 높이는 110cm, 꼬리 30cm에 체중은 50~300kg까지 나간다.

이들은 5~50마리가 무리를 지어 소집단 군거생활을 하며 야침, 저녁으로 활동하여 나무잎, 과일, 나무뿌리, 작은 동물, 파충류, 조류, 농작물(알곡식), 곤충 등을 먹으며 살아간다.

낮에는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거나 개울, 호수 등에서 목욕을 하며 소일을 한다.

이렇듯 근심걱정 없이 단란하게 생활하던 멧돼지도 천따라 발정기가 다가오면 숫놈은 신부감을 미리 접먹어 두었다가 왕위전을 펼친다음 왕자가 암놈들을 독차지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어떤 암체같은 숫놈은 다른 숫놈들이 왕위전을 벌이는 사이에 날쌔 제비족같이 번개불에 콩구워먹듯 신방을 차리고 시침을 뚝뚝떠리는 예도 있다.

멧돼지는 임신한지 112~115일만에 3~12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분만장소는 숫놈의 왕자가 택하되 사람이나 기타 동물들이 접근해올 수 없고 비바람까지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곳으로 정한다.

숫놈은 하루종일 전당대에 올라가서 능선의 좌우를 살피면서 외적의 기습, 자연발화에 의한 심산계곡의 산불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어미와 새끼들을 일일이 챙긴다.

특히 외적의 기습 이상으로 산불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 새끼들이 놀란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나 험난한 계곡을 잘 대피하지 못할 것이란 걱정때문이다.

멧돼지의 산불탐지 기술은 놀랍다. 매연에 대한 후각은 아주 예민해서 가스탐지기보다 더 빠르게 산불난 곳을 찾아낸다. 그리고는 어미와 새끼를 자리에 묻쳐 소방관 대신 출동하여 다른 무리의 멧돼지들과 함께 발화지점보다 5~6m높은 곳에서 발과 주둥이로 흠을 퍼붓거나 바위와 돌을 굴러서 초기진화작업을 벌이며 불길을 잡아준다.

불행하게도 산불이 바람을 타고 심하게 번지면 새끼들의 보금자리에 땅을 파고 산불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주둥이를 그 속에 파묻고 있도록 해서 매연, 연기, 가스등으로 새끼들이 질식사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한다.

돌과 흠을 동원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보금자리 가까이 다가오면 몸통을 굴러서 육탄진화작업을 피고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온 무리들이 힘을 합쳐 새끼 한마리씩을 입에 물어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

어미가 새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동안 아빠 돼지들은 또다른 안전대피작전을 모색하면서 산불진압을 위한 소방관 역할을 특특히 해낸다.

안전한 지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새끼들이 완전히 자라게 되면 한 무리는 분가해서 신개척지를 찾아 떠나며 이렇게 해서 멧돼지들은 멸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다.